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9호 [루체 제25648호] 주제 106(2017)년 5월 19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6일부터 1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미국의 인터넷통신사 CNN NEWS는 북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에서 혁명적 애국인수지일용공공정을 천지지도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에서는 일군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영애군인들이 모두 건강한가, 애로되는것은 없는가를 물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모든 당조직들에서 영애군인들이 사소한 애로와 불편이 있을새

라 세심히 보살펴주는것을 의무와 본분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라오스신문 《이엔터인 타임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방송, 중국의 신화통신, 《요녕조선일보》, 신화망, 도이칠란드연방 인터넷홈페이지 《런지지도소식물》, 민주당공주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제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내관지협회, 네팔조선선전협회, 맥주산세르조선선전협회, 에스페냐 마스고주제사상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도이칠란드연방연방 인터넷홈페이지 《런지지도소식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서남연선구역 최남단에 위치한 장계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사찰하신 소식, 인터넷신문 《오우선 뉴스 포인트》는 영웅조선인민군장군 85돌경축 조선인민군 공중합동타격시위를 보신 소식을 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708호

주제 106(2017)년 5월 12일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돌격대원들과 기술자, 일군, 지원자들에게
김정일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김일성청년
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우리 당의 웅대한 대자연계조구상에 따라 훌륭히 완공된 황해남도의 대규모자연흐름식물길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헌신과 로고를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주는 민중들의 뜻깊은기이며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이 응축된 지역사회의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마음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의 자욱이 맥떡히 아로새겨져있는 황해남도의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물길을 천년백업, 만년보종의 창조물로 훌륭히 건설하도록 혁명적조치를 취해주시고 돌격대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을 힘있게 불려주시었다.

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백두의 굳결성을 공적정신을 지니고 수령의 유호관할정, 당정책옹위정에 떨쳐나선 물길건설자들은 훌륭한 산악과 사나운 강물을 다스리며 간고한 격전을 벌려 황해남도물길 1단계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조선은 걸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철의 의지를 다시금 만민에게 과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의 명도따라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폭풍쳐내밀려 황해남도 물길 1단계공사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돌격대원들과 기술자, 일군, 지원자들에게 김정일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 명예칭호와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김정일훈장 1명	김일성청년영예상 1명	로력훈장 47명
강문석	김정일청년영예상 1명	국기훈장 제2급 342명
로력영웅칭호 4명	공훈설계기칭호 2명	국기훈장 제3급 472명
김충일 장편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 2명	군공메달 2명
최길준 교편	국기훈장 제1급 32명	공로메달 677명
		계 1 583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발령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업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8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이 다함없는 정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로켓연구원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주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적로켓트무력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셨으며 우리 조국을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

세워주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영생의 인덕에 울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그들은 만이대결전의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핵공격수단, 전략무기개발사업을 구상하시고 길은길을 손잡아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못다말문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진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천후대에 길이 빛내이며 당의 전략적 핵강국건설구상을 충정으로 만들어 우리 식의 위대한 청년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해나갈 혁명적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적핵강국의 위력을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뜨거운 축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 평양 도착, 수도시민들 열렬히 환영

【평양 5월 18일합 조선중앙통신】주체조선의 무적막강한 국력을 만민에게 떨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의 대성공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전인총물적전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일으키고있는 천만군민에게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막대한 백배해주고있다.

진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강국건설구상을 실천적성공로 받들어나갈 신념의 명세를 안고 시현의 천만고비를 완강하게 돌파하여 《주체만》의 피성을 만리대공에 정제하게 이룩을

로켓연구원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진무적인사를 보내고있다.

인민의 뜨거운 축하속에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이 1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이날 수도의 거리마다는 세계가 보란듯이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과감히 돌진해나가며 미래와의 대결을 분장내고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핵공격수단, 전략무기개발사업에서 역사적배승을 안아온 국방과학전사들을 맞이하는 경축분위기로 실레

평양체육관광장으로부터 만수대거리, 삼천대거리, 대학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우리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헌시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계, 《주체만》이 탄생한데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위훈자들을 열사안을 시작을 기다리는 수십만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피만전동지와 관계부서 일군들이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을 평양체육관광장에서 맞이하였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을 태운 버스가 통과하는 수도의 연도에는 환영의 꽃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수도시민들은 우리 공화국이 도달한 국방과학기술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는 우리 식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시협발사본 완전성공시켜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온 세상

에 시위하고 미래와 그 후손세력들을 진롭게 한 국방과학전사들에게 공화국기와 붉은기, 꽃다발들을 흔들며 열렬히 축하하였다.

시민들의 축하를 받아안은 개발자들의 가슴마다는 나라의 국방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다시기 위한 전략무기개발사업을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시고 전투에서 이끌어 주시어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을 안아오시기도 모든 성과를 전사들에게 다 들려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실레하였다.

백두의 광력과 배방, 태양의 뜨거운 열과 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세시대를 펼쳐가시는 최세의 명장을 높이 모시어 우리 공화국은 명실상부한 핵강국으로 단방에 위용떨치며 평명한 미래를 향해 질풍노도치고있음을 그들은 다시금 절감하였다.

3 면 으 로 계 속



주체적핵강국의 위력을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에게 보내는 인민의 뜨거운 축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 평양 도착, 수도시민들 열렬히 환영

1 번 에서 계속

개발자들을 해운 배스텔에서 만수대거리에 불러서 정전구역, 모흥구역, 모란봉구역, 서성구역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웨치며 반겨주었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과 무한한 충정의 마음을 안고 표출된 핵탄두뿐 아니라 대형중장거리도 장착할수 있는 중장거리탄도로켓을 완성하여 온 세상을 들었다놓은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

《힘의 만능》을 떠들며 핵공감을 입삼는 미제의 정수리에 철수를 내리고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대국주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크게 공헌한 개발자들은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영광의 질정에 올랐다.

환영의 물결이 끊이지는 연도뿐 아니라 배스텔에서 창진거리로 이르자 대성구역안의 근로자들이 우리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새형의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을 기어 이 완성할 필사의 각오를 안고 본매있게 달려들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진리를 다

시금 실연으로 증명된 위훈자들을 뜨겁게 환영하였다.

새로 개발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시험발사의 대성공속에 집하고 주체의 핵강국, 로케트강국의 주인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생산적양양의 불길은 세차게 일고있는 평양고등교육도시인태평강, 대성세약공장의 로동계급이 축하의 인사로 보내었다.

꽃물결을 헤쳐가며 배스텔에는 옥류교를 지나 대거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길에서

헌신과 열정의 구슬땀을 뿌려가고있는 락양구역, 선교구역, 동대원구역안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달려나와 꽃다발을 흔들며 환영하였다.

로케트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정신과 기쁨을 따라배워 창안과 과학기술의 평마무를 앞장에서 절정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김책공업총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의 학생들도 위훈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조선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친 국방과학전사들에

대한 환영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웠다.

로케트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여, 어머니당이 인준한 오늘의 이 영광, 이 행복을 가슴가득 받으시라!

당의 병진로선을 받들고 피어낸 결사전을 벌려 천사대의 요구에 맞는 또 하나의 완벽한 무기체계, 《주체안》을 만들어낸 개발자들처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갈 인민의 마음을 담아 《나거자 조선아 병진앞으로》, 《연진하는 사회주의》 등의 노래들이 평양

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졌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개발자들을 축하하여 수도의 거리들에 펼쳐진 화국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평도마 《주체안》의 장엄한 피성을 미쳐올린 그 기적, 그 기백으로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대고조적전장마다에서 새로운 만리마속도, 영웅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창출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 우리 인민의 열의와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힘있게 보여주었다.



평원군악기공장이 훌륭히 일떠섰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동력전에 펼쳐나선 평원군 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악기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교육의 해인 올해에 전국각지,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원태를 일으켜야 합니다.》

평원군, 신양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학교들에 나가 학교들의 교육실태를 알아보던 평원남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풍금을 비롯한 악기들이 부족하여 음악교육에서 지장을 받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하여 도당위원회에서는 평원군에 악기공장을 다시 내오고 생산을 활성화할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전설치위원회를 조직하

고 군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다. 도당위원회와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평원악기공장(당시)에서 만든 풍금이 괜찮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건설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사업의 일정에 섰다.

악기공장건설에 펼쳐나선 군당위원회, 군립동맹중앙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3 2 00㎡의 토장을 하루반동안에 처리하여 공장터전을 닦았다.

공장사업소와 평원파수능장, 관관계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건축공사에 펼쳐나 혁신을 일으켰다. 건설자들은 볼로트레키와 축조에서 건설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건설속도를 부단히 높여 나갔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숲길문, 장문을 비롯한 건구류, 외장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에서도 기수가 될 열의안고

강원도청년동맹위원회와 그 아래단위들에서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특히 청년동맹조직들과 학교들에서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강원도청년동맹위원회와 그 아래단위 일군들이 시대정신의 창조자들과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에서도 기수가 될 불라는 열의안고 펼쳐나 이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도안의 학교구내는 물론 산지 풍에도 양묘장들이 꾸려져있는데 모두 수만평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같은 때보다 올해 봄철기간에는 더 많은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어 청년림, 소년단림을 황금산, 보훈산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있다.

이 나날 자기 집터밭에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를 키우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 늘어났다.

범문군 범문고급중학교 학생 최현명은 대를 이어가며 산림조성을 지어가는 집안의 아들답게 자기 집터밭을 양묘장으로 꾸리고 지난해 몇몇동반 수많은 나무를 키웠다. 그런가하면 흥원군 흥원초급중학교 학생 김영길은 애국의 마음안고 부모들의 방조 밑에 양묘장을 만들었으며 자기 학교에 소년단림의 1정보구역에 맡겨 푸른 숲을 펼쳐놓을 맡기 하고 올해에 학급동무들과 함께 많은 나무를 심었다.

이런 성과, 이런 마음들은 결코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청년동맹위원회와 학교일군들의 진지한 탐구와 사색, 한그루의 나무보다도 더 생산하는데 참된 애국이 있고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사업에 열광하는 지품질이 있음을 학생들에게 심어준 사상교양사업의 결실이었다. 결과 학생들속에서는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 하는 애국의 마음이 커졌다. 이렇게 되어 도적으로 수만평의 양묘장이 꾸러졌다. 이것은 온 나라에 일어선다는 산림부구건설의 불비함과 더불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마음속에 애국의 씨가 울려나간 《큰 양묘장》, 조국의 재부를 늘이는데 보탬을 주는 큰 밑천이었다.

이런 한편 초급중학교에서는 이미 하던 소년단림조성사업을 전부 끝내고 10정보의 소년단림을 새로 맡아 8정보이상의 면적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나날이 학교는 소년단림조성사업에서 날다른 모범을 보여 정에하는 현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

시대정신의 창조자답게 대로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곧바로 내달려 갈것은 영예를 빛내길 위하여 앞장서서 청년동맹위원회와 그 아래단위 일군들이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을 위해 싸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 영모게 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청년림, 소년단림조성의 나날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자기 정열안에서 시작되고 애국심은 자기 교향선처럼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서 더욱 커진다는것을 깊이 하는것은 과정으로 되게 하였다것이다.

현사기자 오철훈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주라격전방에서 승전포성 울리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알곡고지 불기어 절명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안북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지난 11일부 모내기전투에 진입하여 시작부터 기세풍채 진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밭하여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면한 모내기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휴집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이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시, 군당조직들과 농촌당조직에서 선전선동책과 수당들을 모내기전투에 총집중하여 추진정치사업과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는 지도면에서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시, 군들에서 우방종자와 이른봄모재배방법을 받아들이고 모내기작업을 주체농업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협동농장들

모내기전투로 들끓는다

평안북도에서

모내기전투의 하루하루를 로력적위주로 빛내여가고있다.

당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신의주시 석하, 용천군 신안, 장산, 영주군 용복, 내동협동농장이 모내기전투의 앞장에서 절명같이 달려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총성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모내기전투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모내기전투의 포성은 서해의 국장으로 알려진 관상벌에서 높이 울리고있다.

작산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우방종자와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골대같이 싹하게 키운 벼보통 내고있다.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높이 세운 그들은 모내기를 시작한 그날부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용천벌에서도 모내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신의주시, 용천군, 영주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할 드높은 열의로 모내기전투에 진입하여 만일 실적을



안악군 용산협동농장에서 - 두파기자 박 집 찍음

제 내밀고있다.

용천군과 정주시, 선천군, 박천군, 철산군을 비롯한 시, 군의 협동농장에서도 모내기를 시작하여 포진마다 푸른 주단을 펼쳐나가고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려자의 대회를 맞이할 일년과도 멀지않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천자들의 불타는 애국적열의와 헌신성에 떠받들려 협동농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모내기성과가 확대되고있다.

특별기자 송 창 은

신원군 장금농장에서

일몰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것은 주라격전방을 지켜선 애국농민의 지겨가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조남명, 김장덕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작업반초급일군들, 유년 실생들과 무를을 마주하고 앉았다.

합력적인 논갑이시기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던 끝에 지난 시기 모내는 시기가 하루하루 같이를 한 논에서 김장생들이 낫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논갑을 모내기에 접근시키면서 그 집을 철저히 보장한다면 김갑이효과를 높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논갑을 모내기에 확대한 접근시키면서 모내기를 적기에 진행할수 있는 시기가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농장일군들은 5월 초부터 본격적인 논갑에 들어 가도록 하였다.

한쪽으로는 모판비배관리에 힘을 집중하면서 다른쪽으로는 논갑을 짧은 기간만에 위약당해제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이 속속 진척되었다.

중요한것은 전투기간에 트랙토르들이 최대한 마력을 내어 논갑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는 문제였다.

강 금 성

혁신적인 사업기풍, 진취적인 일본새

중산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군당위원회의 역할은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디다.》

이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조직한 철지명문화모임에 참가하였던 군당위원장 리영진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탐마다 지명문화모임은 어김없이 하고있지만 일부 단위로에서 영농농정이 지지는 현상이 극복되지 못하고있기때 원인이 무엇인가.

군당책임일군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지명문화모임을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사실 경영위원회에서 탐마다 조직하는 지명문화모임은 자료 모고를 체계하고 앞선 단위로 그렇지 못한 단위의 일군들이 모은다는 방법으로 진행되고있었다. 보고서에 지적된 단위의 일군들은 자극될것이있지만 지적되지 않은 단위의 일군들은 관심이 적었다. 한가대상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과 협동농장관리위원장이 전부

대중의 정신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업은 고정적식화된 틀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 광명한 영농전투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당적지도에서 중산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이 힘을 넣은 문제의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이렇게 하니 확실히 좋은 측면이 많았다. 우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이 많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참가자들이 앞선 단위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고 분발하였다.

중요하게는 앞선 농사경험이 제때에 일반화되고 단위로서의 경영철을 확고히 불어넣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4월 300여명의 단위로 일군들은 성의껏 마련한 비웃고 장화를 비롯한 생활필수품들을 가지고 탐마다 협동농장의 모판관리공들을 일제히 찾아갔다. 그들과 일도 함께 하고 생활원정도 알아보며 제기된 문제도 풀어주면서 일군들이 진행하는 정치사업은 모판관리공들의 정신력을 분출시켰다. 올해 군안의 벼모판의 상태가 매우 좋은것을 놓고 말할 수 있다.

군의 농사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임장에서 당적지도를 짜고 목표있는 군당위원회의 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과 진취적인 일본새는 얼마나 좋은가.

연사기자 손 영 희

자력자강의 위력한 무기를 틀어쥐고

해주트락토르부속품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농업생산에서 승리의 총환을 부르지만 어떤 투쟁정신이 필요한가.

해주트락토르부속품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이 이에 뚜렷한 대답을 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돌파할수 있으며 최상의 조건의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 공장에서 기계의 부속으로 트락토르부속품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구상혁명주철생산공정을 확립하여 크랭크축, 피스톤핀, 치차류들 비롯한 각종 트락토르부속품들을 마음 먹은대로 생산하고있다.

이러한 성과를 두고 초급당위원장 박정철동무는 이제는 근본공리가 풀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우리는 취재과정에 그 근본공리가 무엇임을 의미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그것은 단번의 긴장한 자재문제를 해결하게 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눈에 익고 손에 실다 그 도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여러차례 시험을 해보았지만 기포가 생기고 강도가 보장되지 못하는 결함이 극복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초급당위원회는 로동자들의 기능문제에 주목을 돌려지게 되었다.

사실 구상혁명주철생산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은 로동자들의 기능을 한단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었다.

모든 이 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주강직장 로동자들에게 구상혁명주철의 재료분석자료와 생산과정을 보여주는 례화들을 반복시청시키면서 의욕을 높여주는데 대하여 기술자들이 정당한 해답을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능공들로 명함을 부여 용해와 조형, 주조공정 등 소재과학의 전과정을 표준화해 기조하여 그들을 대외에 배속시켜 경험을 배워주게 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대동적기풍 혁신을 통해 힘있게 달려가기 위하여 사회주의경쟁도 조직하여 고대당 제품생산과 질을 높여 대외당 제품생산과 질을 높여

고 총화 및 평가사업을 의의있게 함으로써 로동자들이 구상혁명주철생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창의발상을 적극 발휘하게 하였다.

대중의 정신력이 발동되면 거대한 착상들이 나왔다. 최후로 임무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제품가공에서 불용되는 공정을 없애줄 수 있게 되었고 한때 주조할 때 5개의 치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자는 안도 나오게 되었다.

기술지지공부를 만루시키는 제품생산에 성공하는 과정은 그대로 농업생산에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었다.

세침을 넣고 펌프나서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평범한 로동자의 배심본뜻한 목소리를 들어 우리는 초급당위원장이 한 말씀에 미심장하게 되새겨보았다.

협업원들을 자강력의 소유자로 키우자,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생산정상화를 밀착있게 담보하는 근본공리가 아니겠는가.

이들의 사업경험은 농업전선에서 대중전선을 높이 울리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당조직들이 당사업의 회력을 이데리 집중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연사기자 김 순 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가 몽골 대외관계성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는 18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

몽골 대외관계성대표단 환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리수용동지가

여기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대표들과 주요 몽골 혁명전선단체,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브. 바르제체그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 대외관계성대표단이 환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력사의 장에 깃들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색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밖에 대표단은 과학기술전당,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저는 신의주에서 살고있는 류류영예 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을 드는것은 영예인들을 존대할데 대한 경애하는 천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저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고있는 시인의 일군들을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

해일과 평명성질을 비롯한 주요명필들과 생일날은 물론이요 때때로 저를 찾아오신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즉시 해결해주시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은 정말이지 다신한 어머니의 심정 그대로입니다.

지난해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 다. 저의 생일이 다가오면

돌격대원들의 정든 집 - 우리 대대

9 2 2 건설돌격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오래동안 집을 떠나 어렵고 힘든 건설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던, 동지들 귀중이 여기고 자애깊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을 따듯히 보살펴주어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건설장마다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대장이 전해준 사연

얼마전 우리가 이 대대를 찾았을 때 일군들은 전투승회모임을 하고있었다.

그사이 한 소대장과 함께 대대를 돌아다니는 정구적면모가 느껴지게 되었는데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따뜻한 어깨에는 대원들을 두팔로 안아안고자 하듯 손이 따뜻했다.

이달한 휴식대에 이르렀을 때 소대장이 생각깊은 어조로 말하였다.

《몇해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조건이 지금처럼 편안하지 않아서 쉬지 못하였습디다. 겨울에는 그의 덤지 못한 침실에서 잠을 자는 대원들도 있었습디다. 하지만 당시 대대가 맞은 과업수행에서 뒤떨어지자보니 우리는 생활조건에 대해서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대정신도원으로서 사업하게 된 김동남동무는 먼저 대원들의 숙소를 돌아보았다. 침실이 불어지지 불이 후끈 달아날 정도로 따뜻했다. 옷바람이 있기에 좋았다. 그로 하여 전경에 불기가 생기고 세

모든의 지향이 비긴 두 대원의 이야기

소대장의 이야기가 세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대원들이 현속 찾아왔다.

우리는 그들이 이끄는대로 대대의 부업기기를 돌아보게 되었다. 버섯을 먹음직스럽게 거르는 세베장도 좋았지만 덩치큰 손은 더욱 놀라웠었다.

물류부대로 삼고 그사이엔 흙을 채워 바깥마을을 본뜬 한 벽면을 따라 만든 김집승우리는 채지기와 염소, 개사나 등이 육식기였으며 비박과 공간에 설치한 락대 그리고 기둥에 매달린 그릇들에서는 죽맛을 비롯한 갖가지 담겨져 차려지고 있었다.

대대가 관리하는 풀밭가운데 푸른 양이들을 보았을 때에는 감이 없지 않았다. 부업을 한다는 형식이 아니라 친정이나 나라신지로 대원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할수 있게 꾸려져있었다.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밭이 없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언저리에 힘한 고개길에서 언덕까지를 차를 부으시오 막아 대원들을 구원하고 사장에 지하게 하였다. 한동안 치료받던 아는 어느 정도 몸을 일으켜서 출수 있게 되자 그는 아들을 이겨내면서 다시금 대원들을 위한 일을 하였다.

여기에 감동된 대원들도 생활의 보금자리를 더할 무리는 일에 적극 뛰어들었다. 그들이 피로한 때면 먼저 취재 하고 일군들이 밤을 새우면서 나가 계획된 일을 끝까지 해낸 날들이 얼마였는가...

그런 날이 여러 수소의 면모가 안팎으로 일선되게 되었다. 한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밭이 없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언저리에 힘한 고개길에서 언덕까지를 차를 부으시오 막아 대원들을 구원하고 사장에 지하게 하였다. 한동안 치료받던 아는 어느 정도 몸을 일으켜서 출수 있게 되자 그는 아들을 이겨내면서 다시금 대원들을 위한 일을 하였다.

여기에 감동된 대원들도 생활의 보금자리를 더할 무리는 일에 적극 뛰어들었다. 그들이 피로한 때면 먼저 취재 하고 일군들이 밤을 새우면서 나가 계획된 일을 끝까지 해낸 날들이 얼마였는가...

그런 날이 여러 수소의 면모가 안팎으로 일선되게 되었다. 한

모든의 지향이 비긴 두 대원의 이야기

소대장의 이야기가 세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대원들이 현속 찾아왔다.

우리는 그들이 이끄는대로 대대의 부업기기를 돌아보게 되었다. 버섯을 먹음직스럽게 거르는 세베장도 좋았지만 덩치큰 손은 더욱 놀라웠었다.

물류부대로 삼고 그사이엔 흙을 채워 바깥마을을 본뜬 한 벽면을 따라 만든 김집승우리는 채지기와 염소, 개사나 등이 육식기였으며 비박과 공간에 설치한 락대 그리고 기둥에 매달린 그릇들에서는 죽맛을 비롯한 갖가지 담겨져 차려지고 있었다.

대대가 관리하는 풀밭가운데 푸른 양이들을 보았을 때에는 감이 없지 않았다. 부업을 한다는 형식이 아니라 친정이나 나라신지로 대원들의 식생활을 윤택하게 할수 있게 꾸려져있었다.

이런 일군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시달일군들이 많은 가정용품들을 들고 집에 들어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문을 풀라하는 저에게 그들은 시달일군들이 당에서 귀중한 보배로 떠나는 영예인군의 생일을 뜻깊게 되도록 해주자고 하면서 이 모든것을 마련하여 보냈다는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아안은 감동이 얼마나 뜨겁던지 모릅니다.

버림후 시달일군들의 축하속에 그들이 차려준 훌륭한 생일상까지 받아안았을 때 저는 어떤 찬란한 어머니당일군들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천수님에 감사고마움의 끈질을 흘렸습니다. 이분이 아닙니다.

시인위원장을 비롯한 군급기관 일군들과 의뢰일군들, 동사수소일군들, 은근한 지면들을 비롯한 봉사부문의 일군들도 때때로 저의 집을 찾아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힘을 주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돌봐주고있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천수님을 어머니로 높이 모시고 사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감동깊은 화복들이 펼쳐질수 있었습니까.

정말 친어머니와도 같은 이런 일군들을 세상에 소러붙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신포시 신충동 9 9 일민반 서 장 철

현지도반

